

포스트힐링의 시대, 치유의 (불)가능성

- <정신병동에도 아침이 와요>를 중심으로

백소연*

1. 서론
2. “경계”에 선 우리, 정상/비정상성의 해체
 - 2-1. 보편적 위험으로서의 정신질환
 - 2-2. 치료 주체-대상의 공통성 부각
3. 모두에게 오지 않는 “아침”, 치유의 (불)가능성
 - 3-1. 치유의 조건, 자기 자원의 확보
 - 3-2. 구조적 모순의 기입과 치유의 불가능성
4. 결론

국문초록

본 논문은 2023년 넷플릭스를 통해 공개된 드라마 <정신병동에도 아침이 와요>에 나타난 정신질환의 재현 양상을 구체적으로 분석하고 그 의미와 한계를 밝히는 데에 목적을 둔다. 이 드라마에서 정상/비정상성의 경계를 적극적으로 해체하고자 한 다양한 극적 설정은 정신질환에 대한 우리 사회의 통념을 일관되게 비판하는 효율적 전략이 되었다. 특히 에피소드적 구성을 통해 여러 환자들의 발병과 치료 과정을 다각도로 조망하면서 어느 누구도 이러한 문제에 예외가 아님을 강조하고 있다. 나아가 치료의 주체인 의료진 역시 언제든지 정신적 어려움을 겪을 수 있으며 의학적 도움을 반드시 받아야 한다는 점도 보여준다. 그러나 이 드라마는 유병자들의 치유와 사회

* 가톨릭대학교 학부대학 부교수

복귀 과정을 재현하는 데에 결정적 한계를 드러내기도 한다. 치유에 있어 정말 중요한 것은 인간관계나 자본과 같은 자기 자원의 확보 여부이다. 그러기에 이를 갖지 못한 인물들은 결국 온전한 회복에 이르지 못한 채 치유가 유보되거나 심지어 극단적 선택을 하게 된다. 그들의 정신적 문제는 대부분 사회 구조적 요인에서 비롯되었지만 그 대안이 모색되기 보다는 개인의 노력 혹은 삶의 현재적 당위만이 강조되고 있다. 이는 포스트힐링으로 접어든 시대에 이 작품이 보여준 분명한 한계라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0년대 중반 이후 정신질환을 다뤄 온 드라마들이 다수 등장한 가운데, <정신병동에도 아침이 와요>가 이룬 일정의 성취는 향후 유사 소재의 드라마가 제작, 방영되는 데에 뚜렷한 참고점이 되리라 본다.

(주제어: <정신병동에도 아침이 와요>, 포스트힐링, 정신질환, 텔레비전드라마, OTT드라마, 정상성의 해체, 치유)

1. 서론

한국 사회에서 IMF 경제 위기 이후 급증했던 다양한 정신적 질환과 신드롬에 대한 미디어 담론이 보여주듯, 경제 위기의 문제는 가족의 위기와 정신 건강의 위기로 두드러지게 재현되기 시작하였다.¹⁾ 개인들의 자아와 정신 건강, 감정을 일상적인 관리와 돌봄이 필요한 문제로 표상하는 경향은 치유 문화 혹은 치유적 담론 등의 형성으로 이어졌다. 개인들이 자신의 감정과 정신을 응시하고 마음의 상처와 우울을 극복하기 위해 다양한 치유 활동에 전념하는 현상²⁾은 미디어에서도 손쉽게 확인된다. 과도한 경쟁

1) 박혜경, 「경제위기가 가족주의 담론의 재구성과 성평등 담론의 한계」, 『한국여성학』 제 27권 3호, 한국여성학회, 2011 참조.

과 사회적 압력으로 탈진된 ‘번아웃’ 사회에서 심리상담을 소재로 삼는 각종 프로그램들이 등장하며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은 그 예의 하나라 할 것이다.³⁾

김은준은 2010년대 이후 한국사회의 문화정경은 ‘힐링’이라는 “메가트렌드”를 빼고 설명하기 어렵다고 말한다. 이는 “신자유주의 질서 속에서 곤고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대중들의 시선을 자기위로와 자기치유에 머물게 하는 방식”으로, “한국의 독특한 자기계발문화의 한 시점을 형성”하였다고 볼 수 있다. 또한 김은준은 정치적 갈등과 경제적 불평등의 심화와 같은 구조적 동인에서 비롯된 다양한 삶의 문제들을, 병인적 주체를 앞세우는 전략을 통해 개인적 차원에서 참고 견딜 문제로 치환하였다고 비판하면서도 최근 ‘포스트힐링(Post-Healing)’이라는 새로운 국면으로의 진입을 주시하였다. 여기서 포스트힐링이란 힐링 열풍이 주도해 온 자기계발담론의 변화가 이루어지는 시기적 개념을 일컫는 말이다. 즉 현실의 부정적 측면을 인정하고 사회의 구조적 결함을 지적하는, 이른바 성찰적 자기계발담론의 가능성을 모색하는 시기를 일컫는 것이다. 그러나 여전히 적극적 대안을 제시하는 단계까지 나아가지 못했다는 점에서 한계는 존재한다.⁴⁾

개인의 심리적 상처와 치유의 문제를 다루는 TV 및 OTT드라마는 다수 존재한다. 특히 의학적 도움이 필요한, 개인의 정신적 어려움을 소재로 한

2) 정승화, 「치유적인 것은 정치적인가-치유 문화에 대한 미국 페미니즘의 비판적 성찰을 중심으로」, 『페미니즘 연구』 제14권 1호, 한국여성연구소, 2014, 194-195쪽.

3) 서우빈·조윤희·김지현, 「이성과 감정 사이, 심리상담 토크쇼를 통한 치유적 예토스의 구성-〈오은영의 금쪽 상담소〉 텍스트 분석을 중심으로」, 『한국방송학보』 제37권 1호, 한국방송학회, 2023, 35-36쪽.

4) 김은준, 「포스트힐링시대 한국사회 성찰적 자기계발담론의 가능성 모색 : 2013~2017년 언론분야 학술지 담론을 중심으로」, 『미디어, 젠더&문화』 제33권 2호, 한국여성커뮤니케이션학회, 2018 참조.

작품들은 2010년대 중반 이후 집중적으로 등장하였다.⁵⁾ 그리고 이 시기부터 정신질환은 드라마의 캐릭터를 수식하기 위해서 동원되거나, 의학 드라마에서 극적 장치로써 사용되었던 것과 달리, 격리, 보호, 권위주의적 치료의 공간에서 일상의 공간으로 들어온 문제가 되었다. 나아가 정신질환의 비정상성 역시 적극적으로 해체되기 시작했다.⁶⁾ 이러한 드라마의 흐름 가운데 2023년 넷플릭스를 통해 공개된 <정신병동에도 아침이 와요>⁷⁾는 “의료진도 만족할 만한 수준의 고증”으로 호평을 받았다.⁸⁾ 원작이 정신병동에서 6년여간 일한 정신보건간호사 출신 작가의 웹툰이라는 점에서, 이 작품은 그 출발부터 높은 현실성을 담보할 수밖에 없음을 보여준다.⁹⁾ 그뿐만 아니라 본 드라마는 공개 직후 국내 넷플릭스 시리즈 1위에 올랐고

5) 노동렬은 2010년부터 2014년도까지 방영된 드라마를 대상으로, 질병의 유형 변화와 스토리에서의 질병의 영향 등을 분석한 바 있다. 그는 2010년 이후 미니시리즈에서 질병의 활용도가 높아지고 있으며 2014년 이후에는 정신적 질병이 크게 증가하였지만 이는 우월성을 지닌 남자주인공의 작은 장애물로 묘사되는 경향이 있다고 하였다.(노동렬, 「인기 TV 드라마에서 질병을 활용하는 방법」,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제17권 8호, 한국콘텐츠학회, 2017.)

6) 이종명·이승아, 「일상으로 들어온 정신병: 드라마 <괜찮아 사랑이야>에 나타난 정신병 재현 읽기」, 『미디어, 젠더&문화』 제32권 1호, 한국여성커뮤니케이션학회, 2017. 참조.

7) 이남규·오보현·김다희 극본, 이재규·김남수 연출, <정신병동에도 아침이 와요> 총 12부작, 넷플릭스, 2023. 11.3. 공개.

8) “이재규 감독은 “기획 당시 자문하면서 대본을 쓰고, 그다음 의사와 간호사의 빨간펜 자문을 구했다. 의학적으로 잘못된 부분, 의학적으로는 위험 요소가 있으나 극적으로 용인될 수 있는 부분으로 분류해서 세트 속 모든 소품, 의료진의 행위, 언행에도 자문했다”라며 “촬영 현장에는 정신병동에 근무하는 현직 간호사들이 교대하며 상주하셨는데, 덕분에 오류를 최소화했다”라고 뒷이야기를 전했다.”, 정승민, <정신병동' 감독도 아픔 있었다... “아내가 이야기하지 말라 했는데...”>, 『MHN스포츠』, 2023.11.17. <https://www.mhnse.com/news/articleView.html?idxno=238101> (검색일: 2024.05.15.)

9) 해당 웹툰은 코미코에서 2017년 10월 16일부터 2022년 10월 23일까지 총 200화 연재됐다. 2020년 3월 16일에 네이버 시리즈에, 2023년 9월 11일에 네이버 웹툰에 업로드되었으며 2024년 1월 11일 네이버 웹툰에서 작가의 후기가 작성된 후 완결되었다. 단행본은 위즈덤하우스에서 2018~2020년까지 총 3권으로 출간되었다.

2023년 방송비평상을 수상하는 쾌거를 이루기도 했다. 대중성과 작품성 면에서 모두 높은 평가를 받은 것이다.

실제로 〈정신병동에도 아침이 와요〉는 여러 에피소드로 구성된 드라마의 구조상, 다양한 정신적 문제를 가진 환자의 군상을 다루면서도, 그들의 치유 과정을 비교적 사실적으로 재현하고 있다. 특히 정신질환에 대한 사회적 편견을 해소하고자 한 여러 극적 설정들은 이전에 존재한 유사한 소재의 드라마들 보다 한발 앞선 인식을 보여준다. 또한 현대인의 정신적 어려움의 근원을 개인적, 사회적 차원에서 다각도로 조망하고자 노력한 점 역시 높이 살 만한 부분이다. 그러나 포스트힐링의 흐름 속에서 사회 구조적 요인이 촉발한 “비정상”의 어려움을 포착하면서도 심도 있게 이 문제를 비판하거나 나름의 대안을 제시하지 못한다는 점은 분명한 한계로 볼 수 있다. 심지어 정상과 비정상의 경계 밖으로 아예 그들을 내몰거나 임시적으로 해당 문제를 봉합하려 한 부분은 충분히 비판받을 만한 지점이 된다.

본 논문은 드라마 〈정신병동에도 아침이 와요〉에 나타난 정신질환의 재현 양상을 구체적으로 분석하고, 정상성에 대한 적극적 경계 해체에도 불구하고 유병자들의 치유¹⁰⁾와 사회 복귀의 과정 속에서 드러난 한계에 대해 고민해 보고자 한다.

10) 물론, 김은정에 따르면 “치유”는 “장애의 존재 자체를 문제로 규정하고 치유 과정에서 그 대상을 파괴”하는 폭력이 되기도 한다. (김은정, 『치유라는 이름의 폭력』, 강진경·강진영 옮김, 후마니타스, 2022, 38쪽.) 그러나 김재형의 지적처럼, “장애와 질병이 사회적으로 구성된다고는 하지만, 개인이 경험하는 생물학적 어려움과 고통은 실재이기에 이를 경감시키거나 제거하는 치유는 필요하다”. (김재형,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배제를 정당화하는 치유」, 『황해문화』 제116호, 새얼문화재단, 2022, 349-350쪽.)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은정의 논의에 있어 장애의 개념은 광범위하게 설정되어 있으며 비폭력적인 치유에 대한 구체적 실체는 분명하게 논의되지 않고 있다. 〈정신병동에도 아침이 와요〉 속 등장인물들의 질병은 주로 사회 환경적 요인에 의해 일시적으로 촉발된 것으로, 실제 치유의 과정은 그들의 고통을 경감하는 데에 직접적 도움을 주고 있다. 따라서 이 작품은 치유 자체가 지닌 본질적 폭력성을 논하는 데에는 다소 어려움이 있다.

2. “경계”에 선 우리, 정상/비정상성의 해체

〈정신병동에도 아침이 와요〉에 대해 성상민은 주류매체에서 보기 드물게, “정상-비정상을 가르는 방법의 의문을 제법 파격적으로 제기한” 작품이라 평한 바 있다.¹¹⁾ 이 드라마는 정신질환이란 “누구나 언제든” (1화) 경험할 수 있으며 그러기에 정상과 비정상의 경계는 구분될 수 없다는 점을 때 에피소드마다 반복적으로 강조한다. 드라마의 도입부에서는 출근 준비를 하는 주인공 정다운을 두고 의도적으로 방송 장면이 노출되는데, 이때 들리는 특성의 구절들은 앞으로 전개될 모든 사건이 수렴될 주제를 압축하여 보여주고 있다. “안타까운 건 사람들의 의식”이라는 점과 “정신질환은 관리의 병”임을 강조하는 명신대학교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과장 임혁수의 대답이 전문가의 권위를 지니고 발화되기 때문이다. 이때 혁수의 대답은 내레이션과 유사한 기능을 한다. 세계를 향한 작가의 인식과 해석이 가장 직접적으로 구체화 되고 있으며, 출근을 준비하는 다운의 움직임이 갖는 의미가 축소된 채 혁수의 목소리만이 의미 전달의 주체로 부상되고 있기 때문이다.¹²⁾ 또한 마지막 화에서 주인공인 다운의 내레이션, “우리는 모두 경계에 서” “낮과 밤을 오가며” 살아가는 존재라는 사실은 1화와 짝을 이루며 최종적으로 다시 한번 정리되고 있다.

정다운 (Na) : 우리는 모두 경계에 서 있다. 꿈과 현실의 경계에 서 있던 병희는 자신만의 해답을 찾았고 불안과 안정의 경계에 있던 유찬은 더 이상 아프지 않을 방법을 찾았고 우울과 비우울의 경계에 있던 나는 우울보다 먼

11) 성상민, 「정신병동의 안은 밖과 다르지 않다」, 『문화과학』 제117호, 문화과학사, 2024, 193쪽.

12) 이다운, 「TV드라마와 내레이션-2000년대 미니시리즈 작품을 중심으로」, 『한국극예술연구』 제41호, 한국극예술학회, 2013, 336쪽.

저 찾아와 주는 그 사람이 생겼다. 우리는 모두 낮과 밤을 오가며 산다. (12화, 밑줄 필자)¹³⁾

수잔 손택은 『은유로서의 질병』에서 가장 진실하고도 건전한 방식으로 질병을 다루기 위해서는 질병을 은유적으로 생각하는 사고방식으로부터 자유로워야 한다고 주장한다.¹⁴⁾ 질병이 병으로서의 의미를 넘어 사회적인 의미와 상상을 더해 ‘다른 무엇’이 되는 과정이 바로 손택이 이야기한 은유이며, 이로 인해 환자들은 병으로 인한 고통 그 이상의 영향을 받는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한국 사회에서 정신질환은 여타의 신체적 질병과 달리, 사회적으로 ‘정당화될 수 없는 일탈’로 인식되었다.¹⁵⁾ ‘2019 정신장애인 국가보고서 이행상황 점검을 위한 실태조사’에 따르면 해당 연구에 참여한 정신장애인 가족들은 치료를 거부하는 이유로 사람들의 차별과 편견을 1순위로 꼽기도 했다.¹⁶⁾ 그러나 이 드라마는 부적격자, 패배자, 심지어 범 죄자의 질병으로 낙인 찍혀 온 정신질환에 대해, 현대인이라면 누구라도 경험할 수 있으며 나아가 유병자를 치료하는 의료진마저 결코 자유로울 수 없는 병이라는 점에 집중하고 있다.

2-1. 보편적 위험으로서의 정신질환

〈정신병동에도 아침이 와요〉는 전문적 치료를 요하는 상태부터 비교적

13) 본 논문에서 인용하는 드라마의 대사는 넷플릭스가 제공하는 자막에 기초하여 정리하였다.

14) 수잔 손택, 『은유로서의 질병』, 이재원 옮김, 이후 오피스, 2002, 15쪽.

15) 이종명, 〈일상의 드라마, 이상한 정신질환〉, 『중앙대학교 대학원 신문』, 2021.05.11. <https://gspress.cauon.net/news/articleView.html?idxno=22163> (검색일: 2024.05.15.)

16) 권지담, 〈가족이 치료 꺼리는 가장 큰 이유 “외부 알려질까 두렵다”〉, 『한겨레신문』, 2020.03.25. 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934054.html (검색일: 2024.05.15.)

경미한 수준의 정신적 피로까지, 심리적 어려움을 호소하는 현대인의 모습을 다각도에서 재현하고 있다. 특히 그러한 정신적 위기를 겪지 않으리라 예상되는, 일정 이상의 사회적 성취를 이루었거나 경제적으로 충분히 안정된 삶을 살아가는 인물들의 발병 양상에 주목한다. 1화에 등장하는 오리나 환자는 바로 그 대표적 사례이다. 여유로운 중산층 가정에서 넘치는 사랑을 받으며 성장하여 안정적 가정까지 이루었지만 그녀는 양극성 장애로 보호 병동에 입원하게 된다. 다운은 정신병동에서 담당하던 첫 환자인 오리나의 발병 원인에 자체에 의문을 품는다. 의사인 여환은 그런 그녀의 질문에 대해 윈스턴 처칠 역시 동일한 어려움을 겪었다는 사실을 들려준다. “뭔가 부족”해서 걸리는 병이 조울증(양극성 장애)이 아니며, 그저 “정신과는 마음의 면역력이 떨어지면 오는” 곳이라고 말하는 것이다.

황여환: 뭔가를 넘치게 가졌다고 해서 정신병에 안 걸리나? 반대로 뭐가 부족하면 정신병에 걸리고? ...(중략)... 아마 오리나님은 아프다고 했을 때 마다 그런 말을 들었을 거야. 너 같은 애가 도대체 뭐가 부족해서 아프냐고, 정신과는 마음의 면역력이 떨어지면 오는 데야. 뼈 부러지면 정형외과 가고 감기 걸리면 내과 가는 거하고 똑같아. 누구나 언제든 약해질 수 있는 거니까. (1화, 밑줄 필자)

“누구나 언제든 약해질 수 있”다는 사실은 “낮과 밤”의 교차처럼, 주기적으로 변화되는 신호등에 비유되어 제시된다. “인생에서 노란 경고등이 깜빡거릴 때”라는 5화의 제목에서 알 수 있듯이 권주영 환자의 상태는 보행자의 동선을 지시하는 신호등에 빗대어 설명되고 있다. 회사 일은 물론, 아이의 교육까지 챙기며 숨 가쁘게 살아온 권주영은 우울증에 따른 가성 치매로 입원한다.¹⁷⁾ 처음엔 자신의 증상을 강하게 부인하지만 그녀는 의

사의 권유로 자서전을 작성하고 자기의 감정 상태를 되돌아봄으로써 미처 인식하지 못했던 내면의 어려움을 직시하게 된다. “노란불”은 누구의 인생 에라도 켜질 수 있으며, 이때 의료적 도움은 “내 마음을 돌아보려는 그 힘”을 회복시키는 자연스러운 과정이라 할 수 있다.

집중 치료를 받아야 할 심각한 상태는 아니더라도 누구나 경험할 수 있는 정신적 어려움과 그 징후는 주인공의 연애 대상으로 등장하는 남성들에게서도 발견된다.¹⁸⁾ 〈정신병동에도 아침이 와요〉에서 동고윤은 손가락을 반복해서 꺾고 혼잣말을 거듭하는 등, 다소 특이한 행동을 이어가는 강박증 환자이다. 그러나 이러한 질환은 준수한 외모와 선량한 성품, 전문직 종사자로서의 뛰어난 능력과 여주인공에 대한 헌신적 사랑까지 갖춘 남성 주인공에 대한 판타지를 훼손할 수준에 이르지 못한다. 다운을 두고 고윤과 삼각관계를 이루는 유찬 역시 부모님의 치킨집에서 배달 일을 돕지만 사실 명문대를 졸업하고 대기업에 입사하여 능력을 인정받은 재원이다. 게다가 고윤과 마찬가지로 일편단심 다운만을 사랑한다. 그런 유찬이 공황장애 때문에 직장을 그만두기는 했지만, 그는 통원 치료를 통해 병을 극복해 나간다. 재취업에 성공하여 무사히 사회생활을 이어간다는 결말이

17) 권주영이 양육자로서, 직장인으로서 과중한 업무를 감당하며 성과를 증명해 내야 하는 것은 “피로사회” 안에서 성과 주체로서의 위치를 극명히 보여준다. (한병철, 『피로사회』, 문학과 지성사, 2012 참조)

18) 노동렬은 2010~2014년 사이 한국 드라마에 나타난 질병의 가장 큰 특징은 남자 주인공에게 정신질환이 드라마 초반부에 발병하는 현상이라 분석하였다. (노동렬, 앞의 글, 361쪽.) 김공숙 역시 2010년대 드라마에서 사망 가능성이 낮은 ‘남주인공’의 ‘정신적 질병’을 초반부에 등장시켜 캐릭터 구축은 물론 스토리의 반전, 발견, 전환점을 만드는 데 활용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한다. (김공숙, 「상처받은 내면치유과정의 멜로 드라마적 재현과 함의-〈시크릿 가든〉과 〈괜찮아, 사랑이야〉 캐릭터를 중심으로-」, 『영상문화콘텐츠연구』 제20집, 동국대학교영상문화콘텐츠연구원, 2020, 166쪽.) 남자 주인공인 동고윤, 송유찬이 각기 강박증과 공황장애를 가지고 있다는 설정은 드라마의 이러한 유행과도 상관관계를 맺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보여주듯, 유찬의 병력은 고윤의 경우처럼 어떠한 문제도 되지 않는다.

오리나, 권주영, 동고윤, 송유찬 등의 캐릭터는 정도의 차이가 있지만 자신의 심리적 어려움을 직시하고 치료의 과정을 기꺼이 받아들임으로써 일상으로 복귀한다는 공통점을 지니고 있다. 그리고 그들은 발병 전 안정된 생활을 영위하고 있었으며 발병과 치료 이후에도 사회적으로 인정받는 위치에 복귀하여 자신들의 일상을 이어간다. 밤이 지나가면 아침이 오는 것이 자연의 이치이듯, 이 드라마는 정신질환에 입혀진 사회적 편견을 다양한 캐릭터의 치료와 복귀의 과정을 그려냄으로써 돌파하려 한 것이다.

2-2. 치료 주체-대상의 공통성 부각

원작 웹툰에서 주인공인 간호사 “정시나”는 자신이 퇴원에 동의했던 환자가 자살 시도를 하자, 그 충격으로 퇴사 후 정신병동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는다. 드라마는 이러한 내용을 그대로 가져오면서도 해당 사건을 보다 극적으로 각색하고 다른 의료진들이 겪는 심리적 문제까지 가미하고 있다. 이는 웹툰이 드라마화 되는 과정에서 나타난 가장 두드러진 변화 가운데 하나이다. 그리고 이러한 의료진의 상황은 정신병동에 입원해 치료를 받는 중증 환자의 사례와 함께 배치되며 의료진과 환자의 공통성이 의도적으로 부각되고 있다.

5화에서 보호병동에 입원한 권주영 환자의 에피소드는 병동 내부에서 훌륭한 업무능력을 보여온 일명 차지(charge) 샘 박수연 간호사의 이야기와 연결된다. 박수연 간호사는 바쁘게 돌아가는 병동의 일정을 소화하면서도 살림과 육아, 아이 교육 문제에 시달리고 있다. 숨 가쁜 일상을 꾸꾸이 버텨나가는 그녀의 모습은 권주영의 현실과 교차되며 제시된다. 두 위

킹맘의 삶이 갖는 공통성은 권주영의 말을 통해 보다 직접적으로 드러나고 있다. 수연이 병원 업무 중에 시간을 내어 아이 친구 엄마에게 전화를 걸고 단톡방에 들어가려 애쓰는 모습을 본 주영은 “꼭 나 같네”라는 혼잣말을 한다. 그리고 주영은 수연에게 이야기를 건네는데, 상대방에서 있던 수연은 과거 주영의 모습으로 전환된다. 그리고 두 사람이 손을 맞잡으면서 본래 수연의 모습으로 돌아오게 된다. (5화 장면 1, 2, 3)

권주영 : 너무 애쓰지 마. 너 힘들 거야. 모든 걸 다 해주고도 못해 준 거만 생각나서 미안해질 거고. 다 네 탓 할 거고. 죄책감 들 거야. 네가 다 시들어 가는 것도 모를 거야. 인생이 전부 노란색일 거야. 노란불이 그렇게 깜빡이는데도 너 모를 거야. 아이 행복 때문에 네 행복에는 눈 감고 살 거야. 근데 네가 안 행복한데 누가 행복하겠어? (5화, 밑줄 필자)



장면 1



장면 2



장면 3

그리고 수연은 주영의 충고를 통해서야, 자신의 삶에 “노란불이 그렇게 깜빡이는” 신호를 미리 알아차리게 된다. 처음엔 자신을 환자 취급한다고 화를 냈지만, 의사인 민서의 충고에 따라 그녀는 자서전을 쓰고 자신만의 시간을 보내기 위해 호텔로 휴양을 떠난다. 만약 주영을 만나지 못했다면 수연은 이 신호를 눈치채지 못했을 것이고 주영과 같은 수순을 밟았으리라는 예측이 가능해지는 대목이다. 이후 병동의 일들을 무리 없이 해내며, 지친 다은에게 휴식을 권하는 수연의 모습은 그녀 삶의 신호등이 다시 파란불로 전환되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다.

명신대학교 병원에 간호 실습생으로 출근한 지승재에게도 밝히지 못한 정신적 어려움이 존재한다. 공황장애를 앓는 그의 모습은 송유찬과 자연스럽게 연결된다. 근무지를 수시로 비우면서도 한사코 자신의 질병을 숨기려는 점은 과거 유찬의 모습과 유사하기 때문이다. 결국 두 사람 모두 치료를 권유하는 주변의 충고에 따라 병원에 방문하게 되는데, 외래 진료를 기다리는 대기실에서 마주친 그들은 비로소 서로를 마주하게 된다. 그리고 치료를 받으며 두 사람 모두 각자의 직장으로 무사히 복귀할 수 있게 된다. 이러한 양상은 앞서 수연-주영의 관계와 흡사하다.

의료진과 환자의 관계를 가장 극적으로 형상화 하는 것은 간호사인 정다운의 사례를 통해서이다. 자신의 환자였던 김서완의 자살 이후, 다운은 극심한 우울증을 경험하게 된다. 결국 자살 시도에 이르게 되면서 그녀는 보호 병동에 입원한다. 자신이 돌봐왔던 환자들은 자기는 다르다며 한사코 부인했던 다운은, 그녀가 보인 일련의 행동을 통해 기존 환자와 다를 바 없음이 밝혀진다. 자신의 병을 부인, 퇴원을 요구하던 그녀가 약 복용을 거부한 채 큰 소리로 난동을 피우기 때문이다. 간호사인 다운과 다른 환자들의 공통점이 환기되는 가운데, 다운의 내레이션은 의료진도 이러한 어려움으로부터 예외가 아니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정하여 전달한다.

정다운 (Na) : 나는 자살을 시도했던 우울증 환자다. 그래서 이곳 정신병동에 왔다. 내가 만난 많은 환자들처럼... 나는 아프다. 그들과 나는 다르다고 생각했다. 같은 옷을 입고 같은 데서 자고 같은 것을 먹어도 나는 여기서 나만이 아프지 않은 사람이라 믿었다. (9화)

굳이 자신이 아니더라도 가장 가까운 가족이 그러한 문제를 겪을 수 있다는 사실은, 수간호사 송효신의 사연을 통해서도 보여지고 있다. 탁월한

능력의 간호사이지만 송효신은 자기 동생의 어려움에 대해 미처 인지하지 못했다. 게다가 조현병 환자인 동생 송애신으로 인해 그녀는 정신질환자의 보호자로서 곤혹스러운 상황을 마주하고 있다. 조현병 환자인 애신이 효신의 가족이라는 사실이 밝혀지는 에피소드는 다은의 입퇴원 과정과 맞물려 배치된다. 다은의 병원 복귀를 반대하는 사람들의 모습은 동생 애신의 이사를 막아서는 아파트 입주민들과 겹쳐진다. 효신은 “본인들만 안 아플 거라고 장담하지” 말라며 일침을 놓는데 이는 곧 화면 밖에 존재하는 시청자들을 향한 말이기도 하다.

송효신 : 정신병이란 건 그런 겁니다. 언제 어디서 누구에게나 올 수 있는 예상할 수 없는 병이요. 본인들만 안 아플 거라고 장담하지 마세요. (11화, 밑줄 필자)

<정신병동에도 아침이 와요>는 정신질환이 보편적으로 경험할 수 있는 질병이라는 점을 강조하면서, 이를 보다 효과적으로 구현하기 위해 내부의 의료진을 치료자로서의 위치에 고정시켜 놓지 않는다. 즉 질환의 당사자로, 혹은 그 보호자로 역할을 전도시키면서, 정신병동에 있는 유병자들과 의료진의 상황을 동일선상에서 제시하는 것이다. 이는 드라마의 주제 의식을 보다 극적으로 보여주기 위한 설정이라 할 수 있다.

3. 모두에게 오지 않는 “아침”, 치유의 (불)가능성

도입부에 나온 혁수의 설명처럼 “정신질환은 관리의 병”이라는 사실은 의료진의 도움과 주변의 지지를 통해 호전되는 환자들을 통해 확인된다.

그러나 그 회복의 여부에는 일정의 차이가 존재한다. 그렇다면 온전한 치유를 가능하게 만드는 것은 무엇인가. 이 드라마 안에는 퇴원 이후를 장담할 수 없거나 여전히 병원을 떠도는, 심지어 스스로 죽음을 선택한 이들이 등장한다. 드라마는 비정상성의 경계를 적극적으로 해체하고자 했지만 그들은 결국 그 경계를 넘어서지 못한다. 이러한 결과의 차이는 그 병이 어디에서 기인하는가, 또 의료적 도움 외에 치유를 위한 자기 자원을 어느 정도 확보할 수 있는가의 문제와 밀접하게 관련된다.¹⁹⁾ 즉 사회 구조적으로 해결되기 어려운 문제이면서 개인적 돌파구마저 찾기 어려울 때, 치유의 가능성은 요원해지며 유병자는 다시 본래의 일상으로 되돌아갈 수 없게 되는 것이다.

이 드라마는 특정 인물들이 보여준 심리적 문제가 단지 개인의 차원이 아닌 사회 구조적 문제와도 밀착되어 있음을 폭로하려 들지만, 동시에 그 해결의 불가능성을 보여준다. 그리고 그러한 갈등을, 지금의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당위 하에 임시로 봉합한다는 점에서 생존주의의 냉정한 단면을 은연중에 드러내고 있다.

3-1. 치유의 조건, 자기 자원의 확보

1회에서 황여환은 오리나 환자의 케이스를 들어 그녀의 우울증이 재발할 가능성이 높다고 발표한다. 과거의 병력도 문제가 되지만 “가족 간의 관계”가 좋지 못하고 “사회적 지지체계”가 부족하다는 것이 그 근거로 제시

19) 실제 정신질환을 앓은 환자들의 인터뷰에 따르면, 약물치료보다는 정신적 상태, 정서적 고통에 대한 진심 어린 공감과 지지가 더 중요하다고 한다. (백민, <미디어·언론에 가려진 정신장애인 삶의 이야기들>, 『에이블뉴스』, 2024.06.11. <https://www.able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13112> 검색일: 2024.05.15.)

되는데, 이는 결국 두 가지 요소가 정신질환을 극복하는 중요한 자원이 된다는 사실을 방증하고 있다. 그리고 오리나 환자가 보호 병동을 벗어나 퇴원할 수 있게 된 데에는 의료적 도움만이 아니라 그녀를 옴아매어 왔던 어머니의 태도 변화가 결정적으로 작용했음을 알 수 있다. 물론 오리나 환자 스스로 “아침을 맞이할 준비”를 하고 마음의 “파동”을 움직일 용기를 냈기에, 회복은 가능했던 것이다.

황여환: ...환자분 이전에 우울 삽화 보였던 경험이 있고 가족 간의 관계도 좋지 못한 만큼 사회적 지지체계 부족하다고 판단됩니다. 우울 삽화 재발할 가능성 높다고 사료됩니다. (1화, 밑줄 필자)

오리나: 저한테도 아침이 올까요?

송효신: 오리나 님이 아침을 맞이할 준비가 됐다면요. 저희들은 환자분들의 마음에 파동을 드릴 뿐이에요. 그 파동이 어디로 가서 닿을지는 아마 환자분들 몫이겠지요. (1화, 밑줄 필자)

다른 환자들의 경우도 이와 유사하다. 어느 정도의 호전을 보이며 병동에서 퇴원한 인물들은 대체로 자신의 병증을 인정하고 치료를 적극적으로 받아들인 경우에 한정된다. 더불어 곁에서 이들을 전적으로 지지하고 헌신해 줄 가족 혹은 지인은 반드시 존재한다. 고윤과 다은의 충고가 있었기에 유찬은 자신의 병을 처음으로 인정하고 외래진료를 받게 된다. 또 이후에도 그는 두 사람의 지속적 관심과 도움으로 공황장애를 이겨낸다. 아내의 자살 이후 심각한 PTSD로 입원한 최준기는 자신의 누나와 자살생존자 모임의 도움을 받아 퇴원에 이르게 되며(7화), 경계선 지능의 박병희는 엄마의 간호와 다은의 진심 어린 충고로 상습 자해를 멈추고 고등학교 생활을 이어간다.(12화) 즉 치유는 자신의 병으로부터 도망치지 않을 “용기”와

“나만의 안전장치”로서의 인간관계를 확보하는 데에서 출발하는 것이다.

동유윤: 가족의 지지가 제일 중요하대요. 어떤 비난도 하지 않고 끝까지 나를 거라고 믿고 기다려주고 응원해주는 거요. (9화)

송유찬: 그래서 나 용기 내보려고. 평생 도망만 치면서 살 수 없잖아. 그러니까 너도 용기 내. 야, 내가 있잖아. (10화)

송유찬 (Na): 불안을 해소하는 방법은 하나다. 아프다고 도와달라고 옆에 있어 달라고 말할 수 있는 나만의 안전장치를 찾는 것 (11화, 밑줄 필자)

특히 정다운은 주인공 캐릭터인 만큼, 드라마 안에서 우울증을 극복해 가는 과정이 다른 에피소드보다 훨씬 더 상세히 다루어지고 있다. 다운의 엄마는 물론 유찬, 고윤은 그녀를 향한 한없는 사랑과 헌신을 보여준다. 유찬은 다운을 위해 좋아하지도 않는 드라마를 보고 이야기를 나누며 함께 시간을 보낸다. 고윤은 자살 시도를 하는 다운을 위험을 무릅쓰고 구했음 뿐만 아니라 고백을 거절하는 다운에게 그녀가 얼마나 반짝이는 사람인지 열변을 토한다. 웹툰 원작에 존재하지 않는 이러한 여주인공의 로맨스야말로 심리적 상처를 보듬는 가장 강력한 “안전장치”로 기능한다. 다운과 달리 가족 안에서 그러한 지지를 찾지 못하는 민들레 간호사의 경우, 연애의 대상은 더욱더 유일한 “나만의 안전장치”가 되어준다.

의사인 황여환은 민들레 간호사에게 사랑을 고백하지만 그녀는 자신의 형편 때문에 그를 밀어낸다. 경제적으로 들레를 착취하기에 급급한 가족들 때문에 그녀는 대학병원이라는 안정적 직장을 갖고도 빚에 시달리며 초라한 생활을 이어간다. 이와 달리 여환은 좋은 집안 출신에 의사라는 직업 때문에 “영앤리치”(8화)의 삶을 살고 있다. “뜨거운 물 안 나오는 집”의

존재조차 인지하지 못하는 여환과 들레의 만남은 “21세기건 31세기건” 쉽지 않은 “계급”이라는 문제와 맞물려 있다. 그럼에도 이 드라마는 남성 일방의 끈질긴 구애와 헌신적 사랑이라는 판타지에 기대어 이를 쉽게 해결해 버린다.

민들레 : 저 만나는 거 황쌤 똥 밟는 거예요... (중략)... 쌤 같은 분에 비하면 전 똥이죠. 음... 황쌤 아버님은 우리 병원 흉부외과 교수님이시죠? 어머님은 신장내과 교수님이시고 형제분들도 다 의사 선생님이시고 그런 집안 막내 아드님이랑 저 같은 게 진짜 어울린다고 생각하세요?

황여환 : 무슨 그런 말을... 들레쌤. 지금 21세기예요.

민들레 : 21세기건 31세기건 계급은 영원한 거예요. 그것도 모르는 순간 한 남자라면 더 답 없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노. (2화)

민들레 : 선생님, 뜨거운 물 안 나오는 집에서 살아보셨어요?

황여환 : 요즘 그런 집이 어디 있습니까?

민들레 : 그게 제가 선생님을 만날 수 없는 이유예요. (3화)

특정의 병명을 진단받은 상황은 아니지만 스스로를 “똥”으로 지칭할 만큼, 민들레는 자존감이 낮은 인물이다. 이는 부모와의 잘못된 관계에서 유래된 것으로 그 치유는 문제에 대한 직면과 결단을 통해서만이 이루어질 수 있다. 즉 엄마를 더 이상 회피하지 않고 단호히 맞서야지만 들레의 상처는 회복 가능하다.²⁰⁾ 자신이 무엇을 좋아하는지 생각해 볼 기회조차 갖지

20) 한 개인의 내면의 문제를 가족 관계를 중심으로 풀어내고자 하는 이러한 시도는 심리상담쇼에서도 지속적으로 시도되고 있으며, 이는 자아의 치유와 변신을 위해 반드시 직면해야만 하는 내면의 상처로 제시된다. (김현경, 「연예인, 치유, 서사 경제 그리고 오은영 현상: 〈오은영의 금쪽 상담소〉를 중심으로」, 『문화와 사회』 제31권 2호, 한국문화사회학회, 2023, 60-64쪽.)

못한 들레에게 여환은 그녀 스스로 내면의 상처를 들여다보게 하고 그 원인에 과감히 맞서도록 격려해 준다. 또한 마주한 현실적 어려움을 해결하도록 돕는다. 그는 민들레에게 엄마를 버리면서 그녀가 “더 나은 대접을 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이라고 위로한다. 그리고 빛을 갠기 위해 집을 처분한 그녀가 자신의 집에서 편히 지낼 수 있도록 배려해 준다. 민들레가 후에 간호사를 그만두고 동경하던 크루즈 승무원의 삶을 선택하는 데에도 여환의 지지와 격려는 절대적으로 작용한다.

황여환 : 들레쌤, 엄마 버려요. 들레쌤은 더 나은 대접을 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이니까 내가 그거 깨닫게 해 줄게요. 매일매일 옆에서 당신이 얼마나 얼마나 귀한 사람인지

민들레 (Na) : 처음이었다. 엄마를 버리라고 해 주는 사람은.

황여환 : 얼마나 멋진 사람인지 내가 알려줄게요. (9화)

정신적 어려움을 치유하기 위해 “기다려주고 응원해주는” 건강한 관계의 확보가 얼마나 중요한지, 이 드라마는 직간접적으로 강조하지만, 막상 그러한 심리적 안전망이 부재한 이들에 대한 답은 제대로 내놓지 못한다. 기껏해야 들레와 같은 처지의 인물에게 제시된 것은 완벽한 남성 주인공과의 로맨스이다. 그리하여 이 작품은 현실적 고민의 지점마저 공허한 판타지로 전환해 버리고 만다. 들레가 자신에게 구애하는 여환을 “순진한 남자”로 표현했듯이, 이러한 “순진한” 공상은 그조차 허락되지 못하는 상황에서는 영원히 치유되지 않는, 혹은 이 세계에서 소거될 수밖에 없는 자들의 운명을 극화하는 것으로 나아가게 만든다.

3-2. 구조적 모순의 기입과 치유의 불가능성

드라마 〈정신병동에도 아침이 와요〉는 웹툰 원작에 등장하는 여러 에피소드를 선별해 극화하였지만 대체로 그 내용들을 상당 부분 가져왔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특정 인물의 경우, 의도적으로 개인사를 변형하거나 새로운 서사를 삽입하는데 이러한 변화는 주목해 볼 만한 것이다. 치유의 과정이 선명하게 드러나지 않거나 부정적인 결과로 이어지는 인물들이 이 사례 안에 존재하기 때문이다. 김성식, 김서완, 정하람 환자가 바로 그들이다.

2화에 등장한 김성식은 직장 상사의 갑질과 가스라이팅으로 중증의 우울증과 불안장애를 얻어 자살까지 시도한 인물이다. 심각한 상태에서 명신대 병원에 입원을 하지만 좀처럼 병증이 낫지 않아 그는 다른 병원으로의 이송을 앞두고 있다. 그런데 김성식의 회사 생활은 과거 유찬이 경험했던 압박과 일맥상통하는 요소가 존재한다. 물론 김성식은 회사 내에서 무능한 인물로 찍혀 상사로부터 괴롭힘을 당했지만 반대로 송유찬은 뛰어난 능력 때문에 업무가 몰리면서 그 압박감으로 공황장애를 얻은 것이다. 그런데 이후 유찬만이 회복을 하고 재취업을 한다는 설정은, 명신대 병원으로 되돌아온 성식의 사연과 대조되며 병을 이겨낼 자기 자원의 문제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역으로 보여주고 있다.

특히 성식이 등장하는 2화의 마지막에 삽입된 다은의 내레이션은 영똥 하계도 모든 고통의 원인을 전적으로 그의 잘못과 연관 짓도록 유도한다. 즉 김성식이 겪은 사건들은 “미움받을 용기”가 부재했으며 “사랑”과 “인정”에 대한 헛된 갈망을 가진 스스로의 문제에서 발생한 것이라 오해할 수 있는 것이다.

다은 (Na) :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건 아마도 미움받을 용기일 것이다.

그런데도 우리는 사랑받고 싶어서 인정받고 싶어서 다른 사람의 시선에 맞춰 내 영혼에 칼을 들이댄다. 그래서 리는 늘 끊임없이 아프고 불행하다. (2화, 밑줄 필자)

이러한 “미움받을 용기”는 마지막 화에서 재취업에 성공한 유찬이 이전 직장에서 겪었던 어려움과 다시 맞닥뜨리면서 이에 대처하는 태도와 연결된다. 유찬은 “표준근로계약서”에 한 서명을 근거로 퇴근 시간에 맞게 자리를 뜨는데 사실 이는 한국의 조직 문화에서 상당히 비현실적인 행동일 수밖에 없다. 그럼에도 유찬의 이러한 행동이야말로 진정한 “용기”이며, 그가 공황장애를 이겨낼 수 있는 강력한 자기 자원으로 제시된다. 이와 달리, 상사의 갑질과 부당한 대우에도 주눅이 든 채 침묵했던 성식의 모습은 그 고통의 원인을 스스로를 돌보지 못한 자신에게서 찾아야 한다고 간접적으로 충고하는 상황이 되고 만다.

송유찬 : 제가 표준근로계약서에 서명을 했는데 근로 시간이 주 40시간 1일 8시간으로 되어 있어서 제가 지금 여기서 더 근무를 하게 되면 근로 기준법 위반이 됩니다. 더 중요한 건 제가 지금 퇴근해서 저를 돌봐야 할 거 같아서요. 시간이 조금 필요합니다. 죄송하지만 먼저 가보겠습니다. (12화)

물론 이 작품은 회사 내에서 벌어지는 부당한 조직문화를 화면 위에 사실적으로 그려내고 있다. 그리고 이는 의사인 혁수의 진단 과정에서 직접적으로 언급되며 해당 사건을 비판적으로 바라보도록 만든다. 그러나 모두가 모여 있는 자리에서 성식을 향한 상사의 폭언과 물리적 폭력이 이어지는데도, 이를 저지하는 시스템이나 그에 맞서는 또 다른 개인은 끝내 그려지지 않는다. 이후 어떠한 사후 조치도 이루어지지 않고 오로지 김성식만이 해당 조직을 떠났을 뿐이다. 그리고 드라마는 이러한 구조적 모순에

침묵한 채, 정신병동에 입원한 성식과 “미움받을 용기”라는 구절을 연결 짓는 것이다.

게다가 로맨스의 당사자가 될 만큼, 수려하지 못한 그의 외적 조건과 결여된 사회성은 들레나 다은이 가졌던 행운이, 허구인 드라마 안에서도 그에게 허용되지 못함을 보여준다. 죽음을 결심하고 옥상 난간에 섰던 그가 외로이 엄마를 부르짖었고, 남동생만이 그의 보호자로 등장한다는 사실은 헌신적으로 그를 지지해 줄 가족, 마지막 “안전장치”마저 충분하지 않다는 점을 확인해 준다. 그가 끝내 사회로 돌아가지 못하고 병동을 전전해야 하는 이유는 여기에 있다.

4화에 등장하는 정하람 환자의 경우, 자신만의 안전장치를 지니지 못했다는 점에서 김성식과 동일하다. 취업이 거듭하여 실패하자 그녀는 월세가 밀린 반지하 방에 고립되어 라면으로 겨우 끼니를 때우며 아르바이트를 이어간다. 그러나 취업을 미끼로 이루어진 보이스피싱 때문에 전 재산을 잃은 후, 하람은 자살을 시도하고 자해의 위협으로 응급입원을 하게 된다. 하람의 이러한 불운은 부족한 스펙, 취업의 실패가 가져온 결과일 수 있다. 그러나 회상 장면에서 나온 그녀의 과거는 취업에 성공했다고 해서 과연 개인의 행복이 이 사회 안에서 충분히 보장될 수 있는 것인지 근본적 의심을 품게 만든다.

폭우를 고스란히 맞으며 쓰레기를 치우던 하람은 자신이 아르바이트하는 음식점의 유리창 안, 건축회사의 신입사원 모임을 부러운 듯 응시한다. (장면 4) 유리창 하나를 경계로 그녀의 앞곳은 운명이 펼쳐진 듯 보이나, 무심히 지나가는 이 장면 안에는 놀랍게도 김성식이 존재한다. 그토록 하람이 들어가고자 하는 무리 속에 김성식이 있지만 그러한 순간에도 그의 표정은 불편해 보인다. (장면 5) 이후 직장에서 그가 겪게 될 엄청난 고난을 고려한다면, 취준생인 하람의 미래 또한 보장되지 않음을 알아차릴 수

있다. 즉 유리창 안의 세상 또한 바깥과 크게 다르지 않다는 인식은 김성식과 정하람의 우연한 마주침을 통해 보다 분명해지는 것이다.



장면 4



장면 5

한강 다리에서 투신하려던 정하람의 뒤로 보인 문구 “혼자 있지 말아요”와 같은 응원 메시지의 불빛이 차례로 꺼지며, 어둠 속에 홀로 남게 된 그녀의 모습은, 이 시대 청년들이 처한 고독하고 고단한 처지를 생생히 재현한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이어지는 다은의 내레이션처럼, 그러한 “상실”을 딛고 일어설 수 있는 유일한 힘이라고는 “낯아 보이는 희망” “뻔한 희망” 밖에 없다. 온전히 치유되지 못한 김성식만큼이나, 유명무실한 희망 외에 의지할 것 없는 정하람의 미래는, 그러기에 결코 낙관할 수 없다. 정하람으로 대변되는 이 시대 청년들의 운명이 더욱 비극적으로 증폭되는 것은 김서완의 사연에 이르러서이다.

다은(Na) : 모든 병은 상실에서 온다. 가장 소중한 것을 잃었거나 자기 자신을 잃었거나... 또는 행복한 순간들을 잃었거나...그럴 때 우리는 이제 너무나 뻔해서 얘기하는 사람조차 낯아 보이는 희망이라는 것에 의지할 수 밖에 없어진다. 그 뻔한 희망. 그 뻔한 희망을 찾기 위해 우리들은 여기 있다. (4화)

원작의 웹툰에서 김서완 환자에 해당하는 인물은 사실 “거북이”라는 이름의 여성이다. 그녀는 사법시험에 7번 낙방하였고 자살을 시도했지만 목숨은 부지한다. 웹툰에서도 거북이의 자살 시도는 정시나 간호사가 정신병동에 입원하게 만드는 결정적 계기이기도 하다. 그러나 드라마에서는 이 “거북이”라는 캐릭터가 “법조인인 아버지를 좇아서 법조인이 되겠다고 하던 딸”²¹⁾로 그려지고 있어 김서완이라는 인물 설정과는 뚜렷이 변별되고 있다. 즉 이 드라마는 캐릭터의 수정을 통해 이른바 흠수저 청년들이 마주한 현실적 어려움을 극대화하여 재현함으로써, 사회 구조적 문제를 비판하고자 의도한 것이다.

2010년대 이후부터 이어진 수저계급론의 논쟁은 결국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자녀의 경제적 우위를 결정하는 중요한 배경이 된다는 것인데, 한국 사회에서 이는 대단히 보편화 된 문제의식이기도 하다. “좋은 대학”을 나와 “학점 관찮은” 김서완이지만 그가 공무원 시험을 선택하고 이에 집착할 수밖에 없는 것은 부모로부터 제공받은 확실한 “스펙”이 부재한, “살아남을 수 있는 길이 이거밖에” 없는 계급적 한계에 봉착해 있기 때문이다. 공무원 시험의 합격 여부는 결국 김서완이 마주한 생존이라는 절체절명의 문제라 할 수 있다.

김서완: 아빠, 저도 면접 많이 봤어요. 근데 그때 알았어요. 좋은 대학 나와서 학점 관찮은 애들 차고 넘쳤다는 거. 제가 등록금 벌려고 알바 하는 동안 다른 애들은 해외 연수, 유학. 뭐 해외 봉사. 뭐, 그런 스펙 쌓았더라고요. 제 스펙 알바밖에 없잖아요. 스펙 안 보는 데는 공무원밖에 없어요. 제가 살아남을 수 있는 길이 이거밖에 없어요. (6화, 밑줄 필자)

21) 아라하, 『정신병동에도 아침이 와요 1』, 위즈덤하우스, 2018, 276쪽.

하지만 자신에게 유일한 선택지라 믿었던 시험에서 거듭 실패한 김서완은 스스로 옥상 위에 올라선다. 근본적 변화가 수반되지 않는 한, 김서완으로 상징되는 질병의 완치가 쉽사리 완료될 수 없다는 사실이 역설적으로 드러나는 장면이다. 그러나 이 사건은 다은의 우울증 발병으로 전환되며 “생존자”로서의 삶을 이어가야 한다는 당위로 빠르게 연결되고 만다. 아이의 돌연사로 인한 아내의 자살, 연이은 가족의 죽음으로 고통스러워 하던 최준기 환자의 에피소드는 서완의 자살과 다은의 발병을 동일선상에서 배치하며 보여준다. 그리고 이는 서완의 선택을 촉발하게 만든 사회 구조적 문제조차 인간사의 보편적 고통이며, 그나마 이 모든 것이 “이미 지나 버”린 “과거”에 지나지 않는다고 말하고 있다. 즉 “현재라는 칼날 위”를 버티는 것만이 “현재 진행형인 사람들”에게 중요한 문제로 남겨져 있는 것이다.

임혁수 (Na) : 우리는 그냥 생존자입니다. 현재 진행형인 사람들이예요. 그러니까 멈추지 말고 그저 오늘을 살아가야 합니다. 현재를 살아간다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는 참 칼날 위에서 있는 것과 같습니다.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고 과거는 이미 지나 버렸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현재라는 칼날 위에서 있습니다. (7화, 밑줄 필자)

김성식, 정하람, 김서완의 사례처럼 <정신병동에도 아침이 와요>는 치유가 필요한 사람들의 삶의 문제에 이 시대의 구조적 모순과 사회적 고통을 적극적으로 새겨넣는다. 그리고 이들의 문제가 결코 특정 개인의 비정상성에서 발생하는 것이 아님을 보여준다. 그러나 막상 해결되기 어려운 거대한 문제를 마주한 드라마는, 이러한 시대의 흐름을 우리는 “멈추”지 못하며 그들의 회복 또한 결코 쉽지 않다는 사실을, “아침”은 그야말로 누

구에게나 평등하게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는 불편한 진실을 의도치 않게 드러내 버리고 말았다.

4. 결론

2012년 연구에 따르면 정신장애를 가진 사람에 대한 편견은 우리 사회의 편견 중에서도 가장 심각한 양상으로 나타나, 그 어떤 편견희생자 중에서도 가장 극심한 사회적 배제의 대상이 되고 있다고 한다. 그런데 이러한 사람들의 편견은 텔레비전이나 영화, 뉴스 보도 등에 의해 가장 많은 영향을 받는 것으로 밝혀져 정신질환에 대한 인식과 이미지 형성에 있어서 대중매체가 지닌 막강한 영향력을 다시금 확인하게 한다.²²⁾ 그런데 이러한 정신질환자에 대한 편견의 하위 요인은 크게 네 가지로 나누어지는데, “위험”, “회복불능”, “식별가능”, “무능”의 차원이 그것이다.²³⁾

그렇다면 〈정신병동에도 아침이 와요〉는 해당 질환을 가진 사람들을 재현함에 있어 이러한 네 가지의 차원 모두에서 새로운 인식을 보여준 작품이다. 즉, 드라마 속 환자들은 자신의 업무와 일상에서 충분히 “유능”했던 이들로 “식별”될 만한 이상성을 갖지 않고 있었으며 “위험”한 인물로 분류되기 어렵고 의료적 도움과 개인의 의지에 따라 얼마든지 “회복” 가능한 존재로 그려진 것이다. 2010년대 중반 이후 등장한 유사 소재의 드라마들 가운데에서도 이 작품은 적절한 현실성을 담보하며 정신질환에 대한 사회적 편견에 구체적으로, 또 적극적으로 맞섰다는 점에서 충분히 유의미한

22) 서진환·이선혜·신동근·권오용·박김영희, 「정신장애인 차별 편견 해소를 위한 실태조사」, 국가인권위원회, 2012, 3-6쪽.

23) 서미경, 「정신질환자에 대한 차별과 편견 실태조사」, 국가인권위원회, 2008.

성과를 보여주었다.

그러나 정신질환의 발병에 사회 구조적 모순이 작용한다는 사실을 폭로하면서도 여전히 그러한 비판의식에 상응하는 해결책을 찾지 못하거나 도리어 해당 문제를 임시 봉합하려 든다는 점에서, 분명한 한계의 요소를 가진 것도 사실이다. 포스트 힐링의 시대에 접어든 지금, 보다 신랄하게 해당 문제를 비판하고 그 해결의 향방을 능동적으로 고민하는 새로운 상상력이 필요한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다.

참고문헌

1. 기본자료

- 이남규·오보현·김다희 극본, 이재규·김남수 연출, 〈정신병동에도 아침이 와요〉 총 12
부작, 넷플릭스, 2023.11.03. 공개.
- 아라하, 『정신병동에도 아침이 와요 1』, 위즈덤하우스, 2018.
- _____, 『정신병동에도 아침이 와요 2』, 위즈덤하우스, 2019.
- _____, 『정신병동에도 아침이 와요 3』, 위즈덤하우스, 2020.
- _____, 〈정신병동에도 아침이 와요〉, 총 210화, 네이버웹툰.

2. 논문과 단행본

- 김공숙, 「상처받은 내면치유과정의 멜로드라마적 재현과 함의-〈시크릿 가든〉과 〈괜
찮아, 사랑이야〉 캐릭터를 중심으로-」, 『영상문화콘텐츠연구』 제20집, 동국
대학교 영상문화콘텐츠연구원, 2020, 165-196쪽.
- 김은정, 『치유라는 이름의 폭력』, 강진경·강진영 옮김, 후마니타스, 2022.
- 김은준, 「포스트힐링시대 한국사회 성찰적 자기계발담론의 가능성 모색: 2013~2017
년 언론분야 학술지 담론을 중심으로」, 『미디어, 젠더&문화』 제33권 2호, 한
국여성커뮤니케이션학회, 2018, 87-134쪽.
- 김재형,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배제를 정당화하는 치유」, 『황해문화』 제116호, 새얼
문화재단, 2022, 344-351쪽.
- 김현경, 「연예인, 치유, 서사 경제 그리고 오은영 현상: 〈오은영의 금쪽 상담소〉를 중심
으로」, 『문화와 사회』 제31권 2호, 한국문화사회학회, 2023, 45-80쪽.
- 노동렬, 「인기 TV 드라마에서 질병을 활용하는 방법」,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제17
권 8호, 한국콘텐츠학회, 2017, 351-365쪽.
- 박혜경, 「경제위기시 가족주의 담론의 재구성과 성평등 담론의 한계」, 『한국여성학』
제27권 3호, 한국여성학회, 2011, 71-106쪽.
- 서우빈·조윤희·김지현, 「이성과 감정 사이, 심리상담 토크쇼를 통한 치유적 에토스의
구성-〈오은영의 금쪽 상담소〉 텍스트 분석을 중심으로」, 『한국방송학회』 제
37권 1호, 한국방송학회, 2023, 34-72쪽.

- 서미경, 「정신질환자에 대한 차별과 편견 실태조사」, 국가인권위원회, 2008.
- 서진환·이선혜·신동근·권오용·박김영희, 「정신장애인 차별 편견 해소를 위한 실태조사」, 국가인권위원회, 2012.
- 성상민, 「정신병동의 안은 밖과 다르지 않다」, 『문화과학』 제117호, 문화과학사, 2024, 187-197쪽.
- 수잔 손택, 『은유로서의 질병』, 이재원 역, 이후 오퍼스, 2002.
- 이다운, 「TV드라마와 내레이션-2000년대 미니시리즈 작품을 중심으로」, 『한국극예술연구』 제41호, 한국극예술학회, 2013, 319-344쪽.
- 이종명·이승아, 「일상으로 들어온 정신병: 드라마 <괜찮아 사랑이야>에 나타난 정신병 재현 읽기」, 『미디어, 젠더&문화』 제32권 1호, 한국여성커뮤니케이션학회, 2017, 41-74쪽.
- 정승화, 「치유적인 것은 정치적인가-치유 문화에 대한 미국 페미니즘의 비판적 성찰을 중심으로」, 『페미니즘 연구』 제14권 1호, 한국여성연구소, 2014, 193-225쪽.
- 한병철, 『피로사회』, 문학과 지성사, 2012.

3. 기타 자료

- 권지담, <가족이 치료 꺼리는 가장 큰 이유 “외부 알려질까 두렵다”>, 『한겨레신문』, 2020.03.25. 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934054.html (검색일: 2024.05.15.)
- 백민, <미디어·언론에 가려진 정신장애인 삶의 이야기들>, 『에이블뉴스』, 2024.06.11. <https://www.able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13112> (검색일: 2024.05.15.)
- 이종명, <일상의 드라마, 이상한 정신질환>, 『중앙대학교 대학원 신문』, 2021.05.11. <https://gspress.cauon.net/news/articleView.html?idxno=22163> (검색일: 2024.05.15.)
- 정승민, <정신병동 감독도 아픔 있었다...“아내가 이야기하지 말라 했는데...”>, 『MH N스포츠』, 2023.11.17. <https://www.mhnsports.com/news/articleView.html?idxno=238101> (검색일: 2024.05.15.)

Abstract

The Era of Post-Healing: (Im)possibilities of Healing - Focusing on *Daily Dose of Sunshine*

Baek, So-Youn(The Catholic University of Korea)

This paper aims to analyze the portrayal of mental illness depicted in the Netflix drama *Daily Dose of Sunshine*, which was released in 2023, and to elucidate its significance and limitations. The diverse dramatic settings in this series actively deconstruct the boundaries between normalcy and abnormality, consistently critiquing societal preconceptions regarding mental illness. Particularly through episodic structures, the series emphasizes that no one is exempt from such issues by offering multifaceted perspectives on the onset and treatment processes of various patients. Furthermore, it portrays that medical professionals, as agents of treatment, are also susceptible to mental difficulties and must seek medical assistance when necessary. However, there are inherent limitations in depicting the process of healing and societal reintegration of patients. Ultimately, the crucial aspect of healing lies in securing resources such as human relationships and capital, and those lacking such resources ultimately demonstrate that complete recovery is unattainable through either deferred healing or extreme choices. While the portrayal of the characters' mental issues stemming from structural societal factors is evident, the emphasis on individual efforts or the existential significance of life, rather than actively seeking alternatives, highlights the clear limitations of dramas in this post-healing era. Nevertheless, amidst the emergence of numerous dramas addressing mental illness since the mid-2010s, the accomplishments demonstrated by *Daily Dose of Sunshine* provide significant reference points for future productions dealing with similar themes.

162 대중서사연구 제30권 2호

(Keywords: *Daily Dose of Sunshine*, Post-healing, Mental illness, Television drama, OTT drama, Deconstruction of normalcy, Healing)

논문투고일 : 2024년 5월 15일

논문심사일 : 2024년 6월 13일

수정완료일 : 2024년 6월 17일

게재확정일 : 2024년 6월 18일